

직업교육

I. 직업교육 정책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 인재 육성방안」 발표(2013.8.7.)

-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꿈 · 끼, 융합 · 전문, 도전, 글로벌, 평생학습 등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Five-Jump’ 전략 및 인프라 등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함.

표 1.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과제

핵심 역량	전략 및 추진 과제
Jump-1 꿈 · 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확대 -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 중학교 자유학기제, 예술 · 체육 · 독서교육 -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체험
Jump-2 융합 ·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 활성화 - 초 · 중등 융합교육 강화: STEAM 확대, 학교 SW 교육 확대 - 창조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인문학 기반 융합교육, BK21 플러스사업, LINC를 통한 지역 융합인력 양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과기특성화대학 융합교육, 미래도전형 연구사업 육성
Jump-3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친화형 교육 · 연구 생태계 조성 - 중등 기술창업교육 강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역량 강화, 창의 · 발명활동 -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 청년창업지원, 대학생 창업역량, 대학 기술 사업화 강화
Jump-4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창의 · 도전 역량 제고 - 해외 산업체 현장학습 및 글로벌 취업 · 창업 확대: 글로벌 창업지원, 청년 해외 취업촉진, 글로벌 전문가 양성 -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해 다양성 · 개방성 제고: 과학자 유치, 국내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창업비자제도 신설, 연구인력 유치
Jump-5 평생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학습기반 마련 - 누구든 언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여건 강화: 학위취득과정 개편, 평생직업교육대학, 산업 기술명장대학원, 한국형 일 · 학습 듀얼시스템 - 경력단절 없는 역량 개발 및 활용: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 재직자 재교육, 여성 역량제고, 퇴직전문인력 활용, 군인 경력개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을 장려하고 존중하는 열린 문화 조성: 교육 · 고용문화 개선, 상상-도전-창업 사회문화로 재편, 아이디어 실현 공간 마련, 성실한 연구자 인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발표(2013. 8.7.보고서).

□ **교육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수립 발표(2013.8.22)**

- 이번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과제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1. 장애 영유아교육의 내실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4.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6.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7.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8.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을 증가 10.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11. 장애성인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여건개선

자료: 교육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2013.8.22. 보도자료).

□ **교육부, 직업교육기회 확대방안 발표(2013.7.26.)**

-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의 연차적 확대 시행
 - 2014년도에는 특성화고 모집정원의 10%(약 1만 1천 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2017년까지 20%(약 2만 2천 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임.
- 시·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모집할 수 있음.
-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일반계고 학생 수를 2014년(11,746명)부터 2015년도

13,046명, 2016년도 14,200명, 2017년도 15,0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기본적인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과정에 '직업소양 중점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특성화고에 '방화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것임. 또한 공공·민간 직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할 계획임.

□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 발표(2013.8.14.)**

- 일반고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다양화, ②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③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④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고, 10월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특성화고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
 -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하여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 허용.
 -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직업훈련 위탁 기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임.

□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발표(2013.8.26.)**

- 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과잉 근로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일터 기반 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①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②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③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표 3.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구분	추진 과제	세부 과제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추진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시달
	현장실습 우수기업 발굴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현장실습 및 취업처 발굴·제공 •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습 희망기업에 학교 정보 제공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한 현장실습 기업체 선정 •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 등에 관한 정보제공
	현장실습 파견 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1학기 종료 이후로 파견 시기 조정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학생 대상 안전 및 근로보호 관련 연수 • 안전보건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현장실습 매뉴얼 인쇄 배포·탑재 • 연구학교를 통해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상담지원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원스톱상담」 지원 •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 확인 및 컨설팅 • 현장실습 순회지도 강화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미파견자와 복귀자 지도 강화 • 파견형 현장실습 평가 강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체계 구축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훈련 매뉴얼' 제공 • 청년인턴 사업으로 우수기업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 CEO 대상 현장실습 연수
	현장실무 교육을 위한 일 기반 학습 운영 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R&D, 운영 자금 등을 우선 지원

자료: 교육부·고용부·중소기업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발표(2013.8.26. 보도자료).

□ 교육부, 국가전략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 추진(2013.7.18.)

- 소프트웨어, 조선해양플랜트, 해외 건설·플랜트, 식품, 종자 생명 분야에서 8차 마이스터고 선정을 추진함.
- 선정·심의를 통해 8차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에는 관계부처가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개교 준비, 운영, 취업, 성과 관리 등의 전 분야를 지원함.
 -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 25억 원을 지원하고, 2014년

부터는 관계 부처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강화할 것임.

-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마이스터고를 결정하고 이를 12월 중 발표할 예정임.
- 이번에 지정되는 학교는 1년여 동안 개교를 준비하여 2015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함.

□ **교육부, 「고졸 국비 유학프로그램 추진 계획」 발표(2013.7.2.)**

- ‘고졸 국비 유학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핵심 현장 기능·기술 인재가 취업 후에도 경력을 개발하도록 국비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고졸 국비 유학 선발 계획의 주요 내용
 - 특성화고 등(구 전문계고) 출신자로서 기능장 이상 자격·능력이 있고, 중소기업 CEO가 추천한 10년 이상(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경력)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경력·잠재능력·유학 후 활동계획 및 어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함.
 - 2014년부터 15명 내외로 선발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석·박사학위 과정, 직업자격과정·산업체(기관) 연수 프로그램 지원
 - 유학 지원 주요 사항: 6개월간 사전 어학적응기간 지원, 교육비·체재비(가족 포함)·의료보험료·항공료 등 지원할 예정임.

□ **교육부 및 특허청,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에 35개 학생팀 선발(2013.7.18.)**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직무발명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 출원 등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참가할 35개 학생 팀을 선정함.

- 마이스터고 18개 팀, 특성화고 16개 팀, (구)종합고 1개 팀이 선정됨.
- 2011년에 시범 사업하여 선정된 아이디어 20건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30건에 대해 전원 특허출원을 완료하였고, 4건은 협력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음.

□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시안)」 발표(2013.8.13.)

-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은 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고등교육체제 구축, ② 고른 접근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 ③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④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고등교육정책의 4대 추진 전략으로 ①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② 대학 특성화, ③ 대학의 글로벌화, ④ 수요자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를 제시함.

표 4. 지방대학 육성의 기본 방향

정책 과제	세부 내용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과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 정착 •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 직업교육, 전문대, 기업 간 연계 활성화 •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연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식강국을 구현하는 학술 지원체제 구축 • 대학원 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원 질 관리
대학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 능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

자료: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시안)(2013.8.13. 보도참고자료).

□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발표(2013.8.1.)**

- 2014년부터 지방 특성화 사업, 지역선도대학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인재 전형이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함.

표 5. 지방대학 육성의 기본 방향

5대 과제	세부 과제
1.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 육성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 • 지역·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평가
2.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역량 강화로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 육성 •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정착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연구역량 강화
3.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재 전형 도입 • 지방대학생 지원 강화 • 지역인재의 채용 우대 강화 • 교수 및 연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4.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 창출 핵심 • 지역평생교육기능 강화 • 지역 문화·복지 거점 역할
5.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 •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 구축 • 부처 간 협업 강화

자료: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 기본 계획(2013.8.1. 업무보고 자료).

□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2013.8.26.)**

- 대입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되,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개선하려 함.
 - 이번 시안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을 간소화하여 대학별 전형방법 6개 이내 사용, 2015학년도부터 영어 수준별 수능(A, B형) 통합, 2015년 및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권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함.

표 6. 대입전형 간소화 등 주요 개선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를 중심으로 전형체계를 표준화 -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간소화 -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유도 - 우선 선발 방식 지양하도록 권장 • 모집 시기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1·2 회차 원서접수 기간을 통합 - 정시모집의 학과 내 분할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을 폐지 -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절차 간소화 •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서접수 절차를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정보공개 및 접근기회 확대
대입전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의 사전 예고를 강화 • 대교협 및 대학이 전형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재정지원과 연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내실 있게 반영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
대학수학 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수준별 수능(A/B형)은 '15학년도부터 폐지 •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 • 수능-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능과 연계하지 않음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문제 출제 시에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대입전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학 지원을 총괄하는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입전형을 지원 • 규제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

자료: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2013.8.26. 보도자료 편집).

□ **교육부, 교육 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 확정(2013.7.2.)**

- 교육 국제화 특구의 기본 사업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2013~2017년)을 확정함.
 -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단위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사업임.
 -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선정위원회 심사 및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개 지역을 최종 선정(2012.11.2.)하였음.
- 이번 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
 - 초·중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특구의 추진목적을 반영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2013학년도 2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금리를 2.9%로 발표(2013.7.9.)**

- 학자금대출 이자는 2008년도 2학기에 연 7.8%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13년도에는 연 2.9%까지 인하됨.
- 지난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201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결과 393,793명에게 1조 3,372억 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4%(30,500명)가 증가한 것임.

□ **교육부,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발표(2013.8.6.)**

- 지난해 발표(12.6.)한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을 토대로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 함.
-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의 주요 변경사항
 - 취업률 지표가 다른 계열보다 낮은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산정하지 않음.

-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축소함.
- 교내 취업을 취업 대상자의 일정비율까지 인정하고, 유지 취업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등의 취업률 지표 왜곡을 방지하려 함.
-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에서는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조정함.
- 정원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경영 부실대학 등 대학 구조개혁 방향 확정(2013.8.1.)

-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고,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2014년도 신입생부터 국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임.
-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 중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7. 20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

(단위 : %, %p)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취업률	20.0	15.0	-5.0	20.0	20.0	-
재학생 충원율	30.0	25.0	-5.0	30.0	25.0	-5.0
전임교원 확보율	7.5	10.0	2.5	7.5	7.5	-
교육비 환원률	7.5	12.5	5.0	7.5	10.0	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0.0	12.5	2.5	10.0	12.5	2.5
장학금 지급률	10.0	10.0	-	7.5	7.5	-
등록금 부담완화	10.0	10.0	-	7.5	7.5	-
법인 지표	5.0	5.0	-	5.0	5.0	-
산학협력 역량지수	-	-	-	5.0	5.0	-

자료: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경영 부실대학 등 대학 구조개혁 방향 확정(2013.8.1. 보도자료).

□ **교육부, 20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및 경영**

부실대학 지정(2013.8.29.)

- 고등교육법상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었고, 이중 대학은 18개교, 전문대학 17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이 5개교, 비수도권 대학이 30개교임.
- 2014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14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이중 대학이 6개교, 전문대학이 8개교임.
 - 학자금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제한대출 대학은 3개교(전문대학 3개교)이며, 3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최소대출대학은 11개(대학 6개교, 전문대학 5개교)임.
-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4개교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7개교 이외의 7개 대학을 평가하여 3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하였으며, 중대·부정비리대학으로 1개교를 추가하여 총 11개교의 경영부실대학이 지정됨.

□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13.7.16.)

-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실시요건, 감리 결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 마련,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 및 공시
 - 지표는 3개 분야·9개 지표로 구성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함.

-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2014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재정규모에 비하여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 **교육부 및 과학창의재단, 「2013년 대학생 창의·융합형 연구과제 운영지원」 사업과제 공모(2013.7.8.)**

-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의 '이공계 전공 심화 부분'과 이공계 중심으로 인문사회·문화예술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는 '창의·융합부문' 총 160개 연구 과제, 도전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 40개 연구 과제를 선정할 것임.
- 이번 공모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전공자들의 융·복합적 연구를 위한 지원 분야를 신설하였고,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함. 아울러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출원 등 연계과제 병행 시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임.

□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013.8.9.)**

- 장학증서를 받은 517명의 희망사다리 장학생들은 1, 2학기 방학 중에 고용계약한 중소기업에서 40시간 이상의 기초직무훈련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됨.

- 올해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 사업’은 대학생에게 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취업 준비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13년 100억 원)임.

□ 교육부, 「2013년도 상반기 창업교육 교원 연수」 개최(2013.8.20)

- 전국 61개 대학(4년제 LINC 51개 대학, 2년제 LINC 10개 대학) 의 창업교육 센터 소속 교수 및 교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가정신 함양 방법 및 창업 프로세스 추진 관련 등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수함.
- 미국 카프만재단(Kauffman Foundation)의 기업가정신 전문교육 프로그램인 PEV(Planning the Entrepreneurial Venture) 교육으로 실시함.
 - 창업을 위한 필요한 문서작성이나 활동 등을 실습하여,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 및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구성함.

□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 방안」 최종 확정(2013.7.18.)

- ‘전문대학 육성 방안’은 지난 6월 10일 시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함.
 - 전문대학 육성 방안은 ①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②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③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④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⑤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 등임.

표 8.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핵심 내용

핵심 과제	주요 특징	목표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학과별 강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 특성화 모형: 대학단위, 복합분야,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력 연간 15만 명 양성 (총 100개교 육성) (취업률 61% → 80% 이상)

수업연한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기반 및 산업수요에 따라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입직을 촉진하고 재직자 계속교육을 위한 선순환 직업교육 체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 체제 구축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 기능인력 · 국제 올림픽 입상자 등을 명장으로 육성 -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고숙련 기술습득을 위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숙련 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0명 양성(4대 권역별 1개교씩, 총 4개교 설치)
평생직업 교육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 통합 · 운영 • NCS 기반 성인중심의 100% 실무형 모듈식 교육과정 통합 · 운영 •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 교육대상자 중 전직자 · 재직자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수요 맞춤형 전문직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만 명 양성(시도별 1개교씩 육성, 총 16개교)
세계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생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국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00명 양성(20개 교 육성)

자료: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 방안」 최종 확정(2013.7.18. 보도자료)

□ 교육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5학년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 지정 발표(2013.7.31.)

- 3년제 간호과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을 심의하여 2011년부터 전문대학 수업 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 대학을 지정하고 있음.
- 이번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 지정은 16개 대학이 신청하였고, 교원 · 교사 확보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12개 대학이 지정됨.
- 구체적인 심사 ·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교원확보율: 간호과(전임 60%, 전체 100%), 학교 전체(전임 50%)
 - 교사확보율: 간호과(4년제 기준) + 기타 학과(4년제 기준의 70%) ⇒ 기준 면적의 100% 이상 확보
 - 학과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적격 여부: 22개 항목

□ **교육부,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2013.7.3.)**

-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총 2,320억 원(사업관리비 제외) 규모이며, 교육 여건 및 성과를 나타내는 8개 지표가 우수한 80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함.
 - ※ 8개 지표: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학점관리 지수,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취업률 지수,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성과지수
- 산업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대학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여 산학일체형 교육을 강화할 것임.
- 교육역량 지원 대학 선정 현황
 - 지역별: 수도권 25개교, 비수도권 55개교
 - 설립 주체별: 국공립 6개교, 사립 74개교
 - 대학당 평균 지원액: 약 29억 원(최저 8억 7천만 원~최고 60억 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2013.7.24.)**

- ‘고급두뇌가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① 고급두뇌 역량 강화, ② 전 산업 파급 효과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③ 창의실현 환경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함.
-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부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 엔지니어링, 해양 플랜트, SoC,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분야에서 연간 1,500여 명의 최고급 두뇌인력 양성할 것임.
 - 공과대학에 지원되는 산업부 R&D 자금(12년 4,480억 원)을 활용,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함.

- ‘고급두뇌 전문기업’ 제도를 신설(‘17년까지 300개 지정)하고, 제조업 위주 정부지원에서 오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두뇌기업 지원기준을 별도 마련함.
- 고급두뇌 역량을 제조업, 에너지 등 전 산업에 파급시켜 고부가가치화
- ‘선 연구개발, 후 포상제도’ 신설,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제도’ 등 고급두뇌 역량이 발휘되는 창의실현 환경 조성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 확정·공고**
(2013.8.27)

- BK21 플러스 사업 중 하나인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은 국가전략 분야의 고급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 등 전 분야를 지원하되, 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건강, 정보보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임.
- 2013학년도에 50억 원, 2014학년도부터 연간 100억 원씩 7년간(2013~2019년) 지원할 예정임.
 - 2년간 지원 후 2015년 전면 재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탈락시키고, 신규사업단을 선정하여 2016년부터 지원할 계획임.
 - 지역대학에 대한 사업비의 비중을 높임(전국 단위 20억 원, 지역 단위 30억 원).

□ **교육부, 「2013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학 최종 확정**(2013.7.31.)

-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 150개 대학이 신청하여,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82개교를 선정함.
 -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정량평가만으로 지원을 확정하여 1차 발표(2013.7.10.)하였고, 18개교는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10개 대학을 2차 선정함.

- 올해 대학별 평균 기본 지원금은 약 23억 6천만 원이며, 82개 대학에 대한 전체 기본 지원액은 1,934억 원임.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인센티브 76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표 9. 2013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선정현황

(단위 : 개교)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1만 이상	1만 미만	교원 양성대	수도권			지방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상 대학 (분교포함)	13	16	11	22	14	13	20	23 (26)	21	153 (156)
신청대학	13	16	11	21	13	12	20	26	18	150
최종 선정대학	12	13	8	12	5	5	10	9	8	82

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종교계·예체능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등은 신청 제한
 자료: 교육부, 「2013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학 최종 확정(2013.7.31. 보도자료).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확대 등 협력을 위한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회의 개최(2013.8.6.)

-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한·중·일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확대하는 방안뿐 아니라 참여 대학의 사업목표 달성도, 참여 학생의 만족도 등 사업의 질적 부분에 관하여 세 나라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
- 캠퍼스 아시아는 한·중·일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대학 간 학점교류, 초청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의 질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사업단에서 학생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대학 발표(2013.8.5.)

- 성인 학습자에게 취업 친화적 평생학습 중심대학 50개교 선정
 - 학위과정 중심 37개교(계속 15개교, 신규 22개교), 비학위과정 중심대학 13개교(신규 13개교)에 총 265억 원을 지원함.
- 학위과정 중심대학은 ‘2030세대 직무능력 향상형’과 ‘4050세대 재도약 지원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선정된 해부터 3년간 성인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
- 비학위과정 중심대학은 베이비붐 세대, 소외계층 등 직업교육이 필요하거나, 직업·자격이 필요한 성인학습자에게 지역과 연계된 일자리 친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함.

□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선정(2013.7.9.)

- ‘201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로 14개 시·도와 85개 시·군·구 등 총 99개 지자체를 선정·발표함.
 - 교육부에서 국고 136억 원을 지원하고, 선정된 시·도와 시·군·구에서 167억 원을 대응 투자하여 총사업비 303억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임.

표 10. 201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 사업별 선정결과

세부 사업	선정 결과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지원	- 3개 진흥원에 대한 신규지원, 기존의 7개 진흥원에 대한 계속 지원 등 총 10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 29억 원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 2012년 대비 국고사업비(15억 원 → 103억 원)와 지원 대상 수(28개 → 85개) 확대하고, 지원 단가 2배 이상으로 증액 -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원(9개)함. - 2013년 28개 도시의 추가 지정으로 총 118개 도시, 전국 227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기반을 구축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 2013년에는 4개 시·도(대구·인천·충북·경북)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지원에 위해 국고 4억여 원을 지원

자료: ‘201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선정(2013.7.9. 보도자료).

□ **교육부,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
(2013.7.1.)

-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은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산재한 평생교육정보와 양질의 공개교육자료(OER)를 연계하는 등 정보와 콘텐츠를 모아 제공함.
-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따라 정보와 콘텐츠를 구성함.
 - 20~30대에는 직무능력 향상 중심 프로그램, 40~50대에는 조기 퇴직 및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 자발적 학습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60~70대에는 여가생활, 건강·의료 등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ICT) 활용이 어려운 60~70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함.

□ **교육부, 검정고시 제도 개선 방안 발표**(2013.8.1.)

- 2015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표 11. 검정고시 제도의 개선 방안

개선 과제	과제별 개선 방안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출제 개선	① 검정고시 출제 교육과정 조정: 2014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② 검정고시 출제 관리 방법 개선: 출제 범위 등 출제계획을 사전 예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적정 난이도 유지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과목 개편: 출제 교과목 축소 조정(2015년부터 8과목 → 7과목)
수험생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① 검정고시 출신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NELIS) 지원 추진 ②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격차 해소: 현행 대부분의 시·도 수수료인 1만 원 이하로 개선 권고, 저소득층 해당자(수급자 등)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③ 검정고시 명칭 개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 변경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① 검정고시 시행 근거 통합 ② 법령문구 개선 ③ 민원서식 개선

자료: 교육부, 검정고시 제도 개선 방안 발표(2013.8.1. 보도자료).

◆ 주요 법령 개정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2013.8.13)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법령을 개정함.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
- 다음의 경우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한정)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변경하고, 원격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을 신설함.

II. 직업교육 통계

◆ 4년제 일반대학 대학정보 공시

□ 2013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2013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79.6%), 자율고(7.5%), 특성화고(4.4%), 특수목적고(4.4%), 기타(4.1%) 순으로 나타남.

표 12. 2013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

(단위: 명, %)

구분	총 입학자 수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 학교	자율고	기타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소계			영재 학교	검정 고시	그 외 기타
전체 (172개교)	326,808	260,071 (79.6)	1,051 (0.3)	8,104 (2.5)	4,958 (1.5)	292 (0.1)	14,405 (4.4)	14,534 (4.4)	24,393 (7.5)	247 (0.1)	4,929 (1.5)	8,229 (2.5)
설립	국공립 (24개교)	67,140 (81.7)	207 (0.3)	1,255 (1.9)	888 (1.3)	107 (0.2)	2,457 (3.7)	2,206 (3.3)	5,393 (8.0)	174 (0.3)	608 (0.9)	1,414 (2.1)
	사립 (148개교)	259,668 (79.0)	844 (0.3)	6,849 (2.6)	4,070 (1.6)	185 (0.1)	11,948 (4.6)	12,328 (4.8)	19,000 (7.3)	73 (0.0)	4,321 (1.7)	6,815 (2.6)
소재	수도권 (66개교)	113,352 (83,826 (74.0)	926 (0.8)	6,679 (5.9)	2,684 (2.4)	69 (0.0)	10,358 (9.1)	3,628 (3.2)	8,800 (7.8)	222 (0.2)	1,734 (1.5)	4,784 (4.2)
	비수도권 (106개교)	213,456 (82.6)	125 (0.0)	1,425 (0.7)	2,274 (1.1)	223 (0.1)	4,047 (1.9)	10,906 (5.1)	15,593 (7.3)	25 (0.0)	3,195 (1.5)	3,445 (1.6)

주: 기타 학교에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특성화 대안학교 포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 고등학교, 폐교 등을 포함함.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3년 신입생 충원율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2013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8.7%로 전년 (99.0%) 대비 0.3%p 감소함.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 중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157개교로 전년(161개교) 대비 4개교가 감소함.
 - 2013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157개교, 70~90%인 대학은 6개교, 70% 미만인 학교는 9개교로 나타남.

표 13. 2013년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단위: 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모집 인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모집 인원 (모집정지 제외)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전체(172개교)	306,193	303,284	99.0	304,429	300,546	98.7	-0.3	
설립	국공립(24개교)	62,505	62,416	99.9	62,054	61,928	99.8	-0.1
	사립(148개교)	243,688	240,868	98.8	242,375	238,618	98.4	-0.4
소재	수도권(66개교)	102,978	102,498	99.5	102,447	101,906	99.5	-0.1
	비수도권(106개교)	203,215	200,786	98.8	201,982	198,640	98.3	-0.5

주: 1) 2013년부터 모집인원에서 행정처분에 의한 모집정지 인원을 제외
 2) 2013년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입학자 수÷(정원 내 모집인원-모집정지 인원))×100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3년 재학생 충원율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2013년 재학생 충원율은 112.7%로 전년(111.5%) 대비 1.2%p 증가함.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 중 2013년 재학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153개교로 전년(150개교) 대비 3개교가 증가함.
 - 2013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대학은 153개교, 70~90%인 대학은 10개교, 70% 미만인 학교는 9개교로 나타남.

표 14. 2013년 재학생 총원율

(단위: 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 대비 증감	
	편제정원	재학생	재학생 총원율	학생 정원 (모집정지 제외)	재학생	재학생 총원율		
전체(172개교)	1,237,100	1,379,392	111.5	1,234,128	1,390,501	112.7	1.2	
설립	국공립(24개교)	251,761	289,200	114.9	251,731	291,678	115.9	1.0
	사립(148개교)	985,339	1,090,192	110.6	982,397	1,098,823	111.9	1.2
소재	수도권(66개교)	412,470	504,100	122.2	412,902	506,143	122.6	0.4
	비수도권(106개교)	824,630	875,292	106.1	821,226	884,358	107.7	1.5

주: 1) 2013학년도부터 모집인원에서 행정처분에 의한 모집정지 인원을 제외한 인원
 2) 재학생=정원 내+정원의 학생 수
 3) 2013학년도 재학생 총원율(%)=[재학생 수 ÷ (학생정원-모집정지 인원)] × 100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2년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 현황

- 4년제 일반대학 162개교의 2012년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는 1,264만 6천 원으로 전년(1,157만 원) 대비 9.3% 증가함.
- 국공립 대학은 1,38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사립대학은 1,22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 수도권 대학은 1,4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비수도권대학은 1,09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음.

표 15. 2012년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 현황

(단위: 억 원, 명, 천 원, %)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총 교육비	재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총 교육비	재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체 (162개교)	186,226	1,609,491	11,570	205,410	1,624,330	12,646	9.3	
설립	국공립 (24개교)	47,748	358,399	13,323	50,051	360,815	13,872	4.1
	사립 (138개교)	138,478	1,251,092	11,069	155,359	1,263,515	12,296	11.1
소재	수도권 (64개교)	94,660	691,054	13,698	103,725	697,326	14,875	8.6
	비수도권 (98개교)	91,566	918,437	9,970	101,685	927,004	10,969	10.0

주: 1) 국공립 대학의 총 교육비는 일반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를 합한 값이며, 사립대학의 총 교육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합한 값임.
 2) 재학생 수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값임.
 3) 분교(9개교)는 본교에 통합하여 공시, 공시시스템 미입력 1개교 제외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2년 장학금 수혜 현황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2012학년도 학생 1인당 장학금은 평균 212만 4천 원으로 전년(145만 6천 원) 대비 45.9%(66만 8천 원) 증가함.
- 국공립 대학은 190만 3천 원으로 전년(130만 2천 원) 대비 46.2% 증가, 사립 대학은 218만 3천 원으로 전년(149만 8천 원) 대비 45.7% 증가함.
- 수도권대학은 223만 6천 원으로 전년(161만 1천 원) 대비 38.8% 증가, 비수도권대학은 205만 9천 원으로 전년(137만 원) 대비 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2012년 장학금 수혜 현황

(단위: 명, 억 원, 만 원, %)

구분	재학생 수	장학금			학생 1인당 장학금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소계	2011	2012	증감률	
전체 (172개교)	1,340,869	14,269	14,211	28,480	145.6	145.6	45.9	
설립	국공립 (24개교)	281,408	3,529	1,825	5,354	130.2	190.3	46.2
	사립 (148개교)	1,059,461	10,740	12,386	23,126	149.8	218.3	45.7
소재	수도권 (66개교)	489,602	4,912	6,037	10,949	161.1	223.6	38.8
	비수도권 (106개교)	851,267	9,357	8,174	17,531	137.0	205.9	50.3

주: 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재학생 수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3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

- 4년제 일반대학 163개교(본교와 분교의 통합 기준)의 2013년(2012년 2학기 및 2013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 취업 후 상환) 이용자는 41만 1천 명으로 전년(39만 5천 명) 대비 1만 6천 명 증가
- 이 중 2013년 일반상환 이용자(8만 명)는 전년(17만 명) 대비 9만 명 감소하였고, 2013년 취업 후 상환 이용자(33만 1천 명)는 전년(22만 5천 명) 대비 10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2013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재학생 수				일반상환 이용자 수				취업 후 상환(든든) 이용자 수				이용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12-1	'11-2	'13-1	'12-2	'12-1	'11-2	'13-1	'12-2	'12-1	'11-2	'13-1	'12-2	이용률	이용률	
전체 (163개교)	1,379	1,286	1,391	1,288	55	115	34	46	144	81	177	154	14.8	15.3	
설립	국공립 (24개교)	289	268	292	272	6	14	4	5	22	14	27	24	10.1	10.6
	사립 (139개교)	1,090	1,018	1,099	1,016	49	101	30	41	122	67	150	130	16.1	16.6
소재	수도권 (64개교)	561	533	564	525	26	52	17	23	58	31	72	62	15.3	16.0
	비수도권 (99개교)	818	753	827	763	29	63	17	23	86	50	105	92	14.5	14.9

주: 1) 이용률(%) = ((일반상환 학자금 이용인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인원) ÷ 재학생 수) × 100

2) 분교(9개교)는 본교에 통합하여 공시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3년 전임교원 확보율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2013년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81.6%로 전년(79.5%) 대비 2.1%p 증가함.
- 국공립대학은 83.2%로 전년(82.5%) 대비 0.7%p 증가, 사립대학은 81.2%로 전년(78.5%) 대비 2.7%p 증가하였고, 수도권대학은 87.1%로 전년(84.1%) 대비 3.0%p 증가, 비수도권대학은 78.3%로 전년(76.6%) 대비 1.7%p 증가함.
- 계열별로 의학(4.9%p), 인문·사회(3.0%p), 공학(2.0%p), 예·체능(1.3%p), 자연과학(0.3%p) 순으로 증가함.

표 18. 2013년 전임 교원 확보율

(단위: 명, %, %p)

구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전임교원 확보율		
전체 (172개교)	77,770	61,801	79.5	77,602	63,353	81.6	2.1	
설립	국공립 (24개교)	18,425	15,202	82.5	18,411	15,319	83.2	0.7
	사립 (148개교)	59,345	46,599	78.5	59,191	48,034	81.2	2.7
소재	수도권 (66개교)	29,480	24,796	84.1	29,487	25,683	87.1	3.0
	비수도권 (106개교)	48,290	37,005	76.6	48,115	37,670	78.3	1.7
계열	인문·사회	30,534	23,501	77.0	30,191	24,149	80.0	3.0
	자연과학	13,982	10,680	76.4	14,291	10,957	76.7	0.3
	공학	18,501	12,022	65.0	18,420	12,335	67.0	2.0
	의학	5,609	10,823	193.0	5,572	11,026	197.9	4.9
	예·체능	9,144	4,775	52.2	9,128	4,886	53.5	1.3

주: 1) 교원 법정정원은 학생정원 기준이며, 전임교원은 학부 전임교원 수와 대학원 전임교원 수를 합한 것임.

2)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 교원법정정원) × 100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2013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의 2013년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7명으로 전년(26.4명) 대비 0.7명 감소함.
- 국공립대학은 23.9명으로 전년(24.1명) 대비 0.2명 감소, 사립대학은 26.3명으로 전년(27.2명) 대비 0.9명 감소, 수도권대학은 24.4명으로 전년(25.3명) 대비 0.9명 감소, 비수도권대학은 26.6명으로 전년(27.2명) 대비 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 인문·사회계열(1.2명), 예·체능계열(0.9명), 공학 계열(0.9명), 자연과학계열(0.1명), 의학계열(0.1명) 순으로 감소함.

표 19. 2013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 %p)

구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	
	학생정원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정원	전임교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체 (172개교)	1,634,481	61,801	26.4	1,630,097	63,353	25.7	-0.7	
설립	국공립 (24개교)	366,566	15,202	24.1	366,604	15,319	23.9	-0.2
	사립 (148개교)	1,267,915	46,599	27.2	1,263,493	48,034	26.3	-0.9
소재	수도권 (66개교)	626,319	24,796	25.3	626,243	25,683	24.4	-0.9
	비수도권 (106개교)	1,008,162	37,005	27.2	1,003,854	37,670	26.6	-0.6
계열	인문·사회	761,220	23,501	32.4	752,655	24,149	31.2	-1.2
	자연과학	278,397	10,680	26.1	278,397	10,680	26.1	-0.1
	공학	368,600	12,022	30.7	368,600	12,022	30.7	-0.9
	의학	44,697	10,823	4.1	44,697	10,823	4.1	-0.1
	예·체능	181,567	4,775	38.0	181,567	4,775	38.0	-0.9

주: 1) 학생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정원이며, 전임교원은 학부와 대학원의 전임교원 수를 합한 수치임.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정원 ÷ 전임교원 수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 고등교육기관 552개교의 취업률은 59.3%(286,896명)로 2012년(59.5%)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 취업률은 61.2%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였고, 대학 취업률은 55.6%p로 전년 대비 0.6%p 하락,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68.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개황

(단위: 개교, 명, %, %p)

구분	학교 수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계	직장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2011	2012	2013
고등교육기관	552	555,142	483,702	286,896	284,660	1,637	599	58.6	59.5	59.3
전문대학	147	184,817	167,679	102,621	101,491	686	444	60.7	60.8	61.2
대학	183	294,952	252,263	140,155	139,187	863	105	54.5	56.2	55.6
교육대학	10	5,055	4,911	3,538	3,538	-	-	55.1	64.7	72.0
산업대학	16	19,075	17,409	11,290	11,221	24	45	65.3	65.3	64.9
각종학교	5	683	531	153	153	-	-	37.3	28.0	28.8
기능대학	24	6,325	5,886	5,006	5,001	2	3	85.5	82.2	85.0
일반대학원	167	44,235	35,023	24,133	24,069	62	2	72.1	69.7	68.9

주: 2011년 취업률은 55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2013.8.29. 보도자료).

- 계열별·전공별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 7대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교육계열이 81.9%, 대학과 일반대학원은 의약계열이 각각 71.1%,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진학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인문계열이 11.7%, 대학은 자연계열이 19.5%, 일반대학원은 인문계열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 현황 및 졸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졸업현황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제외 인정자	기타	미상	외국인 유학생	
전문 대학	전 체	61.2	5.2	184,817	102,621	9,635	1,976	52	4,367	63,530	1,528	1,108
	인문계열	50.6	11.7	7201	3,066	839	82	6	141	2,892	98	77
	사회계열	59.6	5.7	55,595	29,685	3,192	521	9	1,681	19,742	342	423
	교육계열	81.9	2.2	9,649	7,535	212	5	1	215	1,637	24	20
	공학계열	65.6	3.7	40,369	24,482	1,499	535	11	634	12,556	278	374
	자연계열	57.9	4.3	13,226	7,029	567	163	16	302	5,018	99	32
	의약계열	70.8	3.4	27,386	18,105	922	224	1	645	7,363	116	10
	예·체능계열	46.1	7.7	31,391	12,719	2,404	446	8	749	14,322	571	172
대학	전 체	55.6	8.7	294,952	140,155	25,753	1,631	99	4,788	109,639	2,469	10,418
	인문계열	47.8	9.1	38,360	14,844	3,486	202	22	1,929	15,656	539	1,682
	사회계열	53.7	3.4	89,298	42,328	3,048	438	30	1,083	35,607	906	5,858
	교육계열	47.5	5.7	15,238	6,471	866	118	5	478	7,073	70	157
	공학계열	67.4	12.0	68,719	39,447	8,228	302	17	419	18,651	435	1,220
	자연계열	52.5	19.5	35,257	14,389	6,861	133	6	263	12,755	275	575
	의약계열	71.1	3.4	15,041	10,121	516	44	4	177	4,101	20	58
	예·체능계열	43.9	8.3	33,039	12,555	2,748	394	15	439	15,796	224	868
일반 대학원	전 체	68.9	7.3	44,235	24,133	3,246	129	12	532	10,534	356	5,293
	인문계열	45.4	10.4	4,382	1,207	455	2	0	450	1,400	50	818
	사회계열	69.1	4.3	7,592	3,657	327	7	2	11	1,555	82	1,951
	교육계열	71.5	6.2	2,531	1,526	158	1	2	44	585	23	192
	공학계열	77.0	8.9	12,928	8,110	1,153	71	2	9	2,343	73	1,167
	자연계열	65.8	9.7	7,843	4,169	763	26	1	12	2,111	58	703
	의약계열	85.0	4.2	5,780	4,493	245	12	3	1	778	12	236
	예·체능계열	34.8	4.6	3,179	971	145	10	2	5	1,762	58	226

자료: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2013.8.29. 보도자료).

○ 지역별 취업률 현황

- 학교 소재지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수도권 58.9%, 비수도권 59.6%이고, 수도권 취업률은 전문대학 58.6%, 대학 56.7%, 일반대학원 65.5%이며, 비수도권 취업률은 전문대학 63.1%, 대학 54.9%, 일반대학원 72.8%로 나타남.

표 22.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총계	286,896	59.3	102,621	61.2	140,155	55.6	24,133	68.9
수도권	114,948	58.9	41,795	58.6	54,242	56.7	12,320	65.5
비수도권	171,948	59.6	60,826	63.1	85,913	54.9	11,813	72.8

자료: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2013.8.29. 보도자료).

○ 학교 설립주체별 취업률 현황

- 국공립대학 58.1%(전문대학 60.8%, 대학 52.4%, 일반대학원 72.2%), 사립대학 59.6%(전문대학 61.2%, 대학 56.4%, 일반대학원 66.9%)로 나타남.

표 23. 설립주체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286,896	59.3	48,238	58.1	238,658	59.6
전문대학	102,621	61.2	1,997	60.8	100,624	61.2
대학	140,155	55.6	27,439	52.4	112,716	56.4
교육대학	3,538	72.0	3,538	72.0	-	-
산업대학	11,290	64.9	5,722	63.7	5,568	66.1
각종학교	153	28.8	111	25.2	42	46.2
기능대학	5,006	85.0	-	-	5,006	85.0
일반대학원	24,133	68.9	9,431	72.2	14,702	66.9

자료: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2013.8.29. 보도자료).

○ 성별 취업률 현황

- 남성 62.7%, 여성 56.1%로 남성 취업률이 여성보다 6.6%p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률은 전문대학 61.0%, 대학 51.3%, 일반대학원 58.5%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0.5%p, 8.4%p, 18.3%p 낮게 나타남.
- 여성 취업률이 높은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유아교육(82.6%) 유럽·기타어(8.7%) 해양(8.6%) 대학은 의학(84.5%), 치의학(82.0%), 초등교육학 (78.5%), 일반대학원은 간호학(89.4%), 의학(82.4%), 전자공학 (81.8%) 순으로 나타남.

표 24. 성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p)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 차이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286,896	59.3	147,553	62.7	139,343	56.1	8,210	6.6
전문대학	102,621	61.2	43,024	61.5	59,597	61.0	-16,573	0.5
대학	140,155	55.6	76,218	59.7	63,937	51.3	12,281	8.4
교육대학	3,538	72.0	1,074	72.2	2,464	72.0	-1390	0.2
산업대학	11,290	64.9	7,588	68.3	3,702	58.8	3,886	9.5
각종학교	153	28.8	60	31.1	93	27.5	-33	3.6
기능대학	5,006	85.0	4,271	85.3	735	83.8	3,536	1.5
일반대학원	24,133	68.9	15,318	76.8	8,815	58.5	6,503	18.3

자료: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2013.8.29. 보도자료).

표 25. 여성 취업률이 높은 전공(소계열)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전공	졸업자	취업률	진학률	전공	졸업자	취업률	진학률	전공	졸업자	취업률	진학률
1	유아교육	9,190	82.6	2.1	의학	509	84.5	7.7	간호학	552	89.4	3.8
2	유럽·기타어	205	78.7	6.8	치의학	491	82.0	2.0	의학	1,196	82.4	3.3
3	해양	127	78.6	0.8	초등교육학	229	78.5	0.4	전자공학	198	81.8	13.1
4	재활	2,906	74.5	5.0	유아교육학	2,342	77.8	1.8	유아교육학	268	77.0	6.3
5	간로	7,752	73.8	1.7	기계공학	506	75.7	14.4	보건학	183	76.0	3.8
6	보건	7,834	71.8	2.8	재활학	1,550	74.7	3.7	자연계교육	176	75.4	3.4
7	기계	324	71.7	1.9	광학공학	162	71.6	6.8	한의학	155	74.8	7.1
8	비서	1,073	71.1	1.9	전자공학	1,057	71.5	13.3	문헌정보학	137	73.8	2.9

자료: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2013.8.29. 보도자료). 

(작성: 송선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